

가을 정취에 흠뻑 젖는 선비 고을 장성(長城)

강 오 식 / 자유기고가

전남 장성(長城)은 산자수명한 자연경관으로 옛부터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문향(文鄉)의 고장이다. 일찍이 조종생(趙從生)은 장성의 빼어난 산세를 ‘산회수곡 자천성’(山回水曲 自天成 : 산이 둘러있고 물이 굽이쳐 스스로 하늘이 이루었네) 라고 노래했으며 암행어사 박문수는 전라도에서 산수 좋기로는 1장성 2장흥이라 하였다.

장성은 추풍령에서 뻗어나온 노령산맥의 중심지이자 전남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지금은 호남터널을 통해 왕래가 이루어지지만 옛날에는 전남에서 한양으로 가려면 바로 노령산맥의 갈재를 넘어야 가능했다.

이 갈재를 넘어 개설된 국도 1호선은 전남 개화의 큰 몫을 했으며 보부상을 비롯하여 과거보러가는 선비, 임지로 부임하는 관리, 그리고 귀양길의 죄인들까지 모두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했다.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북쪽으로는 백암산, 입암산과 방장산을 거느리고 동쪽으로는 불태산, 서쪽으론 축령산 등 크고 작은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 장성은 두 마리의 용이 고을을 감싸고 있는 ‘좌청룡 우백호’ 모양으로 명당중의 명당으로 꼽혔다.

장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흔히 ‘선비정신’을 내세운다. 스스로 갈고 닦은 학문의 심오한 이치를 깨우치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실생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장성의 문인들이 불의에 목숨을 걸고 저항해온 기개는 바로 이 선비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호남 정신문화의 중심지로 수많은 선비들을 배출한 장성은 역사가 그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조선시대 한 시기를 풍미한 흥선 대원군은 조선팔도의 특성을 논한 ‘호남 팔불여(湖南八不如)’에서 장성을 평하여 ‘문불여장성(文不如長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호남에서 학문을 논할 때 장성을 능가할 만한 곳이 없다는 얘기다.

토지가 비옥하여 고대부터 누에 치기와 종이 기술이 크게 발달한 장성은 본래 백제의 고시이현(古尸伊縣) 등 3개 현에 속하던 지역이었다. 그 후 통일신라와 후백제의 지배를 받다가 고려 태조 19년(936) 고려의 영역이 되면서 장성이라 불리게 되었다.

학문과 예절의 고장 장성은 술한 역사적 인물과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의 보고(寶庫)로 유명하다.

장성이 자랑하는 백양사(白羊寺)는 대한 불교 조계종 18교구의 본산으로 수많은 문화유적을 간직하고 있으며 조계종 종정을 지낸 이서용 스님을 비롯해 많은 불교지도자를 배출했다. 1,300년의 역사를 지닌 백양사는 1971년 내장사와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주변경관이 빼어나 옛부터 대한 8경에 꼽힌 호남의 대표적인 명승지이다.

백양사 경내에는 깎아지른 듯한 학바위를 배경으로 단아하게 서있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극락보전, 사천왕문, 소요대사부도, 청류암의 관음전, 그리고 천연기념물 제 153호 비자림등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다.

고려말의 대학자 목은 이색은 백양사 쌍계루의 아름다운 풍광을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선경을 이루었다고 찬탄했다.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는 쌍계루에서 오른쪽 언덕으로 숲길을 따라 올라 가면 비구니들의 법도 정진 도량인 천진암이 있어 눈길을 끈다.

붉게 물든 단풍과 파랗게 펼쳐진 비자림이 함께 어우러진 백양사의 경치는 보는이의 경탄을 자아낸다. 인근 마을이나 도로변에 붉게 익어 가지가 휘어질 듯 달려 있는 감과 어우러진 전원 풍경은 백암산 주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가을의 운치다.

연중 많은 등산객들이 백양사와 백암산을 찾고 있지만 특히 가을 산행은 주로 낙엽 활엽수의 단풍으로 물든 자연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다. 포장된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온 산이 붉게 타는 듯한 단풍이 장관을 이루는 내장산과 이어져 드라이브코스로도 적합하다.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인터체인지에서 6.4km 지점에 위치한 장성호는 백암산의 골

깊은 계곡을 따라 흘러내린 황룡강의 상류를 막아 1976년 10월 완공된 거대한 호수다.

장성, 광산, 나주, 함평 등 4개 시군의 농토를 적서주는 젖줄 구실을 하고 있는 장성호는 낚시터, 수상스키 및 카누경기 등 전국적인 수상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얀 포말과 함께 수면을 가르며 질주하는 수상스키와 잉어, 초어, 백연어, 붕어 등이 많아 강태공들의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는다.

입암산성(笠岩山城)은 전라남도 최북단 입암산 정상에 있는 석성(石城)으로 고려 고종43년(1256) 몽고 병난 때의 격전지였다. 이때 이광, 송군비 두 장군이 주민들과 합세하여 적을 막아 낸 곳으로, 이미 삼한시대나 후백제 시대부터 성을 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몽고 병난 이후 입암산성은 별로 쓸모 없이 방치되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다시 중요한 군사적 요새가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인 선조 26년 장성현감 이귀가 성을 다시 개축했으며, 정유재란(1597) 때도 왜병들이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요충지로 활용되었다.

입암산 산행은 어느 계절이나 가릴 것 없이 좋으나 특히 가을과 겨울에 좋다. 숲속에는 이름 모를 새들이 자유롭게 등지를 틀고 있고, 가을 역새는 장관을 이룬다. 남창계곡에서부터 시작하는 가을 단풍이 아름답고 산성 정상에서는 호남평야의 황금들판이 풍요롭게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장성이 호남 정신문화의 중심지가 된 것은 조선시대부터였다. 김개, 송흙, 박수량과 같은 청백리가 배출되고, 전라도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대 선비 김인후가 태어났다.

도학·절의·문장을 두루 갖추어 후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는 조선 중조 때 사람으로 장성현 맥동리에서 태어났다. 김인후는 비록 벼슬은 높지 않았으나 당쟁과 사화로 혼탁한 시대를 살면서 퇴계, 율곡 등 당대의 석학들과 교우하면서 학문과 인격을 닦아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우암 송시열은 일찍이 “우리나라의 인물 중에서 도학, 절의, 문장을 모두 탁월하게 갖춘 이는 찾아볼 수 없는데 하늘이 우리 동국을 도와 김선생을 태어나시게 하였다” 라고 말했다.

황룡면 필암리에 있는 필암서원(筆岩書院)은 하서 김인후를 따르던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건립되었으며 호남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이 지역 선비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 뒤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평지에 자리잡은 필암서원은 사적 제242호로 지정되었으며 보물 제587호인 ‘필암서원 고문서’를 보관하고 있다.

필암서원의 확연루 현판 글씨는 우암 송시열이 직접 쓴 글씨이며 전체적으로 조선 시대 서원의 기본 구조를 잘 갖추고 있다.

선비 고을 장성에는 많은 서원(書院)과 사우(祠宇)가 있어 특히 눈길을 끈다. 원래 26개였는데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모두 훼손되어 필암서원만 남았다가, 그 뒤 점차 복원되고 신설되어 현재는 변이중 선생의 봉암서원(鳳岩書院), 기정진 선생의 고산서원(高山書院)등 20여개의 원·사가 남아 있다.

또한 장성에는 지금까지 허균(許筠)이 지은 소설 속의 가상인물로만 알려졌던 홍길동(洪吉童)이 실제 실존인물로 그 출생지가 장성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술조사에 따르면 홍길동은 세종25년(1443)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아치실에서 홍상직의 아들로 태어났다. 홍길동은 장성에서 자랐으나 서얼이라는 신분 때문에 벼슬을 할 수 없는 등 사회적 활동이 제약되어 집을 나가 의적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아치실에는 몇 백년은 된직한 아름드리 감나무와 시누대(山竹)에 둘러쌓인 생가터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또 30여m 아래 암땀굴 계곡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길동샘’이 있다.

장성군은 지역 고유의 문화 브랜드로 홍길동 캐릭터를 개발하고 홍길동 생가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5월 ‘홍길동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장성은 토지가 비옥하고 수리시설이 완비되어 농업과 원예 및 과수가 발달되었다. 특히 사과, 배, 포도, 단감 등과 양질의 딸기, 꽃감, 고로쇠 등이 특산품으로 생산된다.

또한 솔, 참나무, 송이, 목이 등의 버섯이 많기로 유명하며 백양사의 작설차는 나무의 새싹을 따서 말린 것으로 그 은은한 향기와 맛이 일품으로 꼽히고 있다.

오래 사찰주변은 음식맛이 좋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백양사의 산채정식과 버섯죽, 버섯뎡밥은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 음식으로 유명하다. ☺